

서울 공정관광 선언문

1. 공정관광은 현재 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의 평등을 고려해야 한다. 현세대의 이해당사자들 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의 이해당사자들에게도 공평하도록 우리의 후손들의 몫인 자연, 환경, 사회적 자원 및 문화유산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관광산업을 이끌어 가야 할 것이다. 2017년 우리는 유엔이 정한 지속가능한 관광의 해를 맞이한다. 지속가능한 삶이 없다면 지속가능한 관광은 존재할 수 없다. 지속가능한 삶과 지속가능한 관광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을 세계 도처의 관광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

2. 2015년 한국을 찾은 관광객 수는 1천3백만 명을 기록하였고, 이 중 78.7%에 달하는 천만 관광객이 수도 서울을 찾고 있다. 대도시(Megacity)는 많은 국가에서 관광의 중심축을 이루고 있으며, 도시의 주인인 주민, 도시를 찾는 관광객이 모두 행복한 관광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 서울시는 관광의 혜택이 지역주민들에게도 공유되어야 하며, 살기 좋은 곳이 관광하기에도 좋은 곳이라는 인식을 공유한다.

3. ‘2016 서울공정관광국제포럼’은 공정관광과 관광개발의 중요성에 관해, 단지 문제를 제기하고 인식 변화를 촉구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중장기적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수립하고 실천해나가는 것을 목표로 개최하게 되었다. 모든 종류의 관광은 더 공정해짐으로써, 주민들과 그들의 문화 및 환경에도 혜택이 돌아가도록 함과 동시에 관광객들 또한 보다 의미 있고 추억할 만한 경험을 하도록 할 수 있다.

4. 관광객수의 급격한 증가와 이로 인한 지역사회 및 시의 인프라와 환경에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서울시는 2016년을 관광혁신 원년으로 삼아, ‘2016 서울공정관광국제포럼’을 통해 시의 관광정책이 공정한지, 또 공공성을 충분히 정책에 담고 있는지, 변화하는 관광욕구에 대응한 선도적인 관광정책을 공정성과 공공성이라는 가치를 기반으로 담으려고 노력하고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5. 서울시는 도시의 관광정책을 더욱 적극적으로 관리해야하는 변곡점에 서 있다. 이는 관광담당 부서뿐만 아니라 도시계획, 건축물관리, 교통, 환경 및 도시폐기물 관리 등 시의 통합적인 접근을 필요로 한다. 서울시의 이와 같은 통합적 접근이 이루어질 때 관광이 주민공동체 및 환경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효과 있는 혜택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이다.

시정부는 도시 주민들이 자신의 삶의 터전에서 이웃들과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호할 의무를 지닌다.

6. 단지 개발과 성장을 위한 관광정책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관광'은 어떤 정책과 노력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는지, 도시의 주인인 주민, 또 도시를 찾는 관광객에게 공정한 관광과 지속가능한 개발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이러한 목표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정책당국과 학계, 시민사회와 전문가 등이 각각의 영역에서 해야 할 실천적 과제가 무엇인지, 새로운 길과 방법을 모색해 '서울 공정관광 선언'에 담아 서울을 비롯한 아시아의 대도시, 나아가 전 세계 도시 관광의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하고자 한다.

7. 우리 모두는 주변 지역, 국내 그리고 해외를 여행하는 여행자이다. 여행을 통해 새로운 문화와 환경을 공유하고, 우리 스스로의 삶뿐만 아니라 때로는 방문한 곳의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도 한다. 공정관광의 핵심가치는 존중이다. 다른 사람들의 삶의 터전을 여행하는 관광객으로서 우리는 주민들의 삶과 그곳의 자연 및 문화 환경을 존중하는 책임감을 가져야 할 것이다. 아울러 자신의 삶의 터전에서 이루어지는 관광에 대해 지역민들도 중요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관광객의 소비가 지역민의 삶을 불편하게 하거나 현지의 자연 및 문화를 훼손하게 될 경우, 이러한 관광은 공정하지 않으며 따라서 환영받을 수도 없다.

8. 2017년은 유엔이 정한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의 해'이다. 서울시는 주민들이 살기에 더욱 좋은 곳을 만드는데 관광을 활용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에 관광이 기여하도록 하고자 한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도시의 정치인, 정부 관계자, 관광업계, 지역공동체 및 시민사회 모두 활발한 참여가 요구된다. 정책관계자들은 모든 형태의 관광이 공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모색하고 실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자신이 살고 있는 도시 및 이웃에서 어떤 관광정책이 수립되고 적용되는지, 그 기획단계에서부터 의사결정, 실행 및 모니터링에 이르는 전 과정에 지역민들의 동참여가 필요하다. 자신들의 삶의 어느 부분까지를 관광객과 함께 나눌 것인지를 결정해야 하는 것이다. 아울러 단순히 양적 측면에서 관광객 수가 늘어나는 것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관광으로 인한 일자리 창출과 지속가능한 개발로부터 도시가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를 고민해야 할 것이다.

9. 관광업계는 주민과 관광객을 연계해 문화와 경제교류를 촉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관광업계는 주민과 관광객이 상호 삶과 문화를 존중하는 가운데 더 많은 교류가 촉진될 수 있도록 공정하고 창의적인 공정관광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관광업계는 지켜야 할 관광가

치를 점검하고, 변화에 대응한 다양한 대안 관광상품을 개발해야 한다.

10. 공정관광 및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이 대도시 중심에서 점차 중소 도시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필요한 관광정책을 수립하고 실천 전략을 강구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도시의 관광 현장, 도시에서 활동하는 지역 전문가, 업계, 학계, 정책관계자가 상호 경험을 공유하고 협력해야 한다.

11. 공정관광 및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의 패러다임이 아시아의 대도시들과 도시 간 연대를 통해 확산될 수 있도록, 각국의 대도시 관계자가 앞장서서 도시 간 협력을 도모해야 한다. 공정관광과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은 관광을 억제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과 관광객, 관광업계간 상호 존중과 협력을 통해 풍요로운 삶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임을 선언한다.